

김원숙 연보 Chronology



여동생과 백일사진, 1953년

1953

1953년 3월 27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차은희와 김경래 사이에서 태어났다.

1954

한국전쟁이 끝난 후, 첫 번째 생일에 서울로 이사한다. 김원숙은 두 아들과 여섯 딸로 구성된 여덟 자녀 중 둘째로, 두 할머니가 있는 한국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경향일보 신문의 기자이자 편집장으로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전세계의 위대한 작가들의 고전 책들과 음악에 둘러싸여 성장한 김원숙은 할머니들이 이야기해준 한국의 설화나 가족의 엄격한 일상생활의 배경이 된 기독교의 성경 이야기를 그렸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성경 몇 장씩 읽기 위해 모였다."

"우리가 읽은 것들, 예를 들어 솔로몬 왕이나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렸다."

1959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수송국민학교에 입학한다. 초등학교 교육과 타고난 조용한 성정으로, 김원숙은 일기장에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그렸다. 학교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교사들은 김원숙의 시각적인 재능을 보았다. 환경 미화 위원회에 선발되었을 때, 그녀는 교실을 꾸미고 중요한 생일 행사를 위한 다양한 장식을 맡았다. "한국에서는 아이의 첫 생일, 특히 남자아이라면 성대한 축하 파티를 했고, 나는 파티를 꾸미는데 눈썰미가 있는 아이였다."

1968

숙명여자중학교를 졸업하고 경희여자고등학교에 입학했으며, 당시 한국 미술 교육은 동양화/서양화로 나뉘어 있었다. 김원숙은 전통적인 서양화를 선택했다. 엄격한 예술적 연습을 포함하는 정직한 전통적인 서양화를 공부했다. "한 학기 내내 달걀 하나만 그렸고, 다음 학기 내내 달걀 두 개를 그렸다. 이런 엄격한 훈련 덕분에 1972년 미국에 왔을 때 뭐든 잘 그릴 수 있었다."

1971

집 지하실에 화실을 꾸미고 석고상 공부를 했다. 한국 최고의 미술대학 중 하나인 서울의 홍익대학교에 1년간 다녔다. 이후 김원숙은 더 넓은 시야와 독립성을 갖기 위해 해외 미술 학교들을 찾았다. 유학을 위해 미국을 선택했고, 주요 미국 대학들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 TOEFL 시험 준비를 위해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1972

미국으로 이주하여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진학했으며, 이곳은 그녀에게 최고의 장학금 기회를 제공했다.

1974

자신이 자전적 성격을 띄는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교사 해럴드 보이드(Harold Boyd)의 도움이 컸다. 그는 그녀에게 일기 형식의 시각적 표기법을 예술의 기초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자아로 문을 열어준 중요한 스승이었다."

판화 제작 작업을 시작했다. 로버트 블라이(Robert Bly)와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 같은 자전적 시인들의 작품도 읽었다.

1975

일리노이 주 노멀 주립대에서 도예로 미술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마다 스튜디오



어머니와 함께, 서울, 1954년



언니와 함께, 1954년



미국 인형과 함께, 1959년



김원숙 1960년



고등학교 시절, 1970년



서울 첫 스튜디오, 1971년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1972년



가족 사진, 1972년



딸 세일리, 아들 스톤과 함께,
1982년 한국 순천 근처 촬영



뉴욕 스튜디오, 1984년

오에서 견습을 위해 일본 마시코를 방문했다. 점토의 한계에 좌절하여,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판화 공부를 계속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랜드폴 프레스에서 마스터 프린터 잭 레몬(Jack Lemmon)의 견습생으로 일했다.

작은 스케치북을 토대로 더 큰 드로잉과 회화로 바꾸었다.

1976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첫 개인전을 열었고, ISU 미술센터에서 전시된 "Normal Experience"는 높이 2미터, 길이 36미터의 설치 작품으로, 갤러리 전체 면적을 채웠고, 현재 서울 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서울 명동화랑에서 첫 한국 전시를 열었다. 그녀의 그림에 대해 평론가 오광수는 "...보편성에 뿌리를 둔 자신의 정신을 가진 예술가"라고 평했으며, 화가 변중하와 다른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작품의 절반 이상이 판매되면서 커리어에 탄력을 받고, 한국 미술계에서 명성을 얻었다.

뉴욕 트라이베카의 22 워렌스트리트 로프트로 이사해 피터 부쿠르(Peter Boucour), 토니 왕(Tony Wong), 제니퍼 바틀렛(Jennifer Bartlett), 잔 해시(Jan Hashy) 등 고군분투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살았다. 뉴 이매지스트 전시를 같이 했다. 베타 홈즈 앤 가든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일이 끝나고 밤에 그림을 그리며 뉴욕 생활을 꾸려나갔다.

1978

그녀의 많은 스케치와 드로잉 시리즈를 나무 상자에 담고 상자 위에도 그림을 그렸다. 메릴린 클로노디다스(Marilyn Klonodidas)는 드로잉 센터에서 친구를 데려와 자신의 작품을 보러 왔다. 그 결과 드로잉 센터에서 그녀의 그림자 시리즈 드로잉들을 선보였다. 브룩 알렉산더는 그녀의 작업실을 방문해 자신의 소호 갤러리에서 작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그 전시가 다른 전시들의 시작이 되었다. 서울 길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아파트 라이프 매거진과 메이시스, 블루밍데일즈 카탈로그 부서에서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로 일했다.

1979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1980

카터 래드클리프(Carter Radcliff)가 그녀의 작업실을 방문해 브룩 알렉산더 갤러리에서 열린 『환상과 알레고리』 전시회에 리처드 보스만, 켄 굿맨, 토마스 로슨, 로버트 롱고, 데이비드 살레 같은 뉴 이매지스트들과 함께 전시하도록 초대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 선교사 스티브 린튼의 아들을 만나 결혼했다. 스톤과 세일리라는 두 명의 혼혈 한국인 자녀를 입양했다.

집 모양의 나무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981

커트 마커스의 초청으로 마크 탠시, 로빈 투스, 아이다 애플브루그, 돈 베클러 등과 함께 에피소드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했다.

1982

MoMA의 흑백 전시와 인디애나폴리스 미술관의 회화 및 조각 비엔날레에 포함된 작품들을 전시했다.

브룩 알렉산더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1985년까지 전속으로 이어졌다. 해외와 한국 갤러리에서 꾸준히 전시했다.

GALLERY YEH



뉴욕 스튜디오, 1984년



유엔 본부, 1995년



첫 손주 니콜라스, 1999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토마스
와 함께, 2003년



아웃사이더의 사랑, 2004

할렘 142번가로 이사해 위층에 스튜디오를 만든다.

1983

한국의 서울 예화랑에서 개인전 개최.

1985

전 세계 여행을 하며, 특히 일본 문화에 매료된다.

1987

일본 도쿄의 와타리 갤러리와 INAX 갤러리, 서울의 한국미술관에서 전시 개최.

1988

함부르크 마세, 독일 함부르크에서 전시. 유럽 전역을 여행했다.

1990

뉴욕, 시카고, 불가리아, 볼로냐, 브라질, 마드리드 등 전 세계의 갤러리와 박물관에서 전시했다. 서울 예화랑에서 개인전 개최.

북한 고아원과 의료시설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을 시작했다.

1991

멕시코시티 현대미술관에서 김원숙의 작품을 전시했다. 멕시코로 여행을 떠나 프리다 칼로의 집을 방문했다.

1992

스페인 마드리드 아르코(ARCO)미술제 예화랑과 참가

1993

ISU 갤러리 디렉터 배리 블라인더먼은 김원숙을 초대해 그녀의 스승 해럴드 보이드와 함께 ISU 노멀 일리노이에서 열리는 전시회 'The Spirits Descending'를 개최했다.

1994

불가리아 문화부는 김원숙에게 불가리아 소피아의 갤러리 비스토샤에서 개인전을 열도록 초대했다. 두 번의 오프닝이 많은 관중을 끌어모았다. 전시회 강연과 프로그램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그마 갤러리, 뉴욕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1995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d.p.fong이 김원숙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유엔 협회 세계 연맹의 유엔 본부 사무소에서 한정판 석판화 'Full Moon Lady'를 발행했으며, 이 작품은 한국전쟁 종전 50주년을 기념하는 유엔 우표가 되었다.

1996

C.S. 루이스의 책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에서 영감을 받아 200점이 넘는 드로잉, 회화, 벽화를 제작했다.

한국 시인 미당 서정주의 일화에 영감을 받은 『천개의 산』 시리즈를 제작했다. 미당은 나이가 들자 기억력을 유지하려고 천 개가 넘는 전세계의 산 이름을 외었는데, 영감을 받아 산 모양의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

월시 갤러리, 고위 갤러리, 일리노이 주 휘튼, 빌리 그레이엄 박물관에서 전시했다.

1997

서울의 예화랑, 뉴욕의 맨더빌 갤러리 유니언 칼리지, 프랑스 파리의 갤러리 간-보부르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했다.

1998

메릴랜드로 이사. 더 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GALLERY YEH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졸업식
연설, 2004년



스튜디오, 2005



기생 시인들을 위한 드로잉,
2006년



스튜디오, 2008



삶은 그림' 출간, 2011년



2012년 현대 갤러리 전시

서울 아트 스페이스에서 전시했다.

서울 조선일보미술관, 부산 공간화랑에서 김원숙의 한국 개인전을 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월시 갤러리, 뉴욕의 브루스터 갤러리, 사우스캐롤라이나 듀
웨스트의 보워 아트 갤러리에서 김원숙의 작품을 미국 개인전을 개최했다.

북한을 위한 인도주의적 노력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9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사비나 리 갤러리에서 김원숙의 개인전을 개최.
다섯 명 중 첫 손주, 니콜라스가 태어났다.

2000

이탈리아 볼로냐에 있는 팔라초 몬테파노에서 잠시 거주하며 전시를 개최. 작품들
은 대한민국 유엔 대표단과 뉴욕시 중앙문화센터에서 개인전으로 전시되었다.

서울의 예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모국어어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한국어로 글쓰기 연습을 계속했다.

2001

독일 콘베르크 한나 갤러리에서 전시.

토마스 콘은 2000년 독일 아트 쾰른 아트 페어에서 그녀의 작품에 감명받아, 브라
질 산파울루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김원숙의 작품을 전시했다. 토마스 맥코맥
의 초청으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토마스 맥코맥에서 정기적으로 전시를 개
최했다.

스티브 린튼과의 결혼 생활에 중지부를 찍었다.

2002

서울 연미술이 지원하는 대규모 협업 판화 프로젝트에서 작업했다. 이 프로젝트에
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마스터 프린터 스킵 반하트의 에칭, 뉴욕 코리도 프레스
의 팀 지슬리와 함께한 컬러 석판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노멀 에디션에서 에
칭 작업이 있다. 한국 부산의 공간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2003

3월 27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의료기기 발명가 토마스 클레멘트와 50번째 생일
에 결혼했다.

2004

4월 4일부터 4월 21일까지 김원숙의 개인전이 서울 현대화랑에서 열렸으며, 이어
서 부산의 공간화랑, 일본 고치의 하네마루 갤러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사
비나 리 갤러리, 뉴욕의 쿠퍼 유니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김원숙을 졸업식 연설자로 초대했다.

2005

한국 부산의 공간화랑, 뉴욕의 2x13 갤러리, 위스콘신주 매디슨의 프로메가 아트
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원숙이 1976년에 시작된 석고 조각을 다시 시작했다.

2006

최윤희와 함께 기생 시인 드로잉 책을 출판한다.

9월 8일 - 10월 14일, 개인전 『Loves of Outsiders』, 시카고, 일리노이주 토마스 맥
코믹 갤러리에서 개최.

10월 18일 - 11월 3일, 개인전 『Loves of Outsiders』, 한국 서울의 갤러리 현대에서
개최. 전시회에서는 회화, 석고, 브론즈 캐스팅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전시,
2016년



김원숙, 『순수, 초기 작품
1972-1976』, 2016년



2019년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김원숙
미술대학 명예, 2019년

2007

서울의 예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3월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

2008

실물 크기 청동 조각이 시작된다.

2009

10월 1일 - 10월 21일, 뉴욕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숲의 정경'연작을 선보였다.

2010

3월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탈리아 부드리오의 Le Torri Dell'acqua 갤러리에서 'Poesia dell'Aqua', 캔버스에 혼합 매체로 전시했다.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탈리아 카프리의 카프리카르나 갤러리에서 '포에지아 델라쿠아', 캔버스에 혼합 매체로 전시.

2011

숲의 정경(Forest Scenes) 연작이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김원숙의 여동생 원미를 위한 피아노 콘서트의 배경이 되었다.

한국의 아트북스에서 김원숙의 에세이 모음집 『삶은 그림』을 출간했다.

2012

6월 12일부터 7월 8일까지, 서울 갤러리 현대에서 열리는 김원숙 전시에서 김원숙의 숲의 정경 연작과 브론즈 캐스팅 작업, 캔버스에 유화, 혼합 매체를 전시했다. 이탈리아 치니나에서 숲의 정경 연작 전시.

브론즈 드로잉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붓 드로잉을 브론즈로 제작해 벽에 거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2013

워싱턴 D.C.의 MK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4

한국 부산의 공간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

2015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김원숙 장학금 기금 설립.

2016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유니버시티 갤러리에서 김원숙의 초기 작품들과 최신 작품들을 함께 개인전 개최.

김원숙, 『초기 작품 1972-1976』이 이 전시와 함께 출간되었다.

2017

조지 베르지스 갤러리(뉴욕, NY)에서 개인전 개최.

2018

조지 베르지스 갤러리(뉴욕, NY)에서 개인전 개최.

2019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김원숙에게 명예 예술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예술가이자 동문인 김원숙의 1,200만 달러 기부를 인정받아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미술대학 명칭이 공식적으로 김원숙 예술종합대학으로 변경되었다.

개인전; 원심 컬렉션, 서울, 한국

2021

서울의 예화랑에서 개인전 <In the Garden>개최

GALLERY YEH



예화랑 개인전 2021년

2023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샤토 갤러리에서 개인전 개최

2025

개인전; 원 아트 스페이스, 뉴욕, NY

개인전; 라우스 컴퍼니 재단 갤러리, 콜롬비아, 메릴랜드

2026

서울의 예화랑에서 개인전 <Eternal Spring> 개최